



박범계 “불법선거자금 건 구체적 사정 전혀 들은바 없다”

“침묵 이유는 법사위 간사·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수사중 발언 부적절하다 생각”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원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료를 통해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저는 법사위 간사를 지냈고,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 무언가를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김소연 의원의 진실개입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4월 11일 대전역으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약속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 23일과 9월 22일에도 김 시의원을 만났지만, 이 건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김 시의원이 9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 위증함, 긴급성 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변씨는 한 때 제 비서관이긴 하였으나, 가정 사정을 이유로 2016년 6월에 사직했다”며 “그 뒤로 단 한번의 통화나 문자, 일면식조차 없었고, 공개적인 정당 활동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제가 변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그가 이 사건에 관여되

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다. 그는 지역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씨와 방차석 당시 서구의원 후보의 돈 수수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김 시의원 폭로 뒤에 그것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간헐적으로 알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는 깨끗한 정치를 생명으로 알고 정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했다고 자부한다”며 “이와 같은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과 당 대표를 비롯한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과 대전시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A여고 ‘스쿨-미투’ 범 위반
대전교육청 교사 5명 경찰 고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9월 관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성비위 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SNS 등을 통한 ‘스쿨-미투’로 문제가 된 A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 실시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교육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문제가 야기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전교육청 류준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될 바라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11월 21일 국회 앞에서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 쟁취를 외치며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국회=김승구기자>



“에듀·코칭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설동호대전교육감, 제2회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 참석

설동호 교육감은 21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2회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 ‘에듀힐링 잔치마당’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상담, 코칭, 힐링, 동행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소통과 공감의 행복한 학교 문화 구현을 위해 진행되는 제2회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

에서 행복을 가득 담아 에듀·코칭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에듀힐링센터, 지역사회 대학, 지자체, 유관기관 등 53개 기관이 참여해 상담Zone, 코칭Zone, 힐링Zone, 동행Zone 등 4개의 영역에서 60개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상담으로 내 안의 나를 만나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코

칭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여 꿈꾸며, 힐링으로 나와나, 우리의 행복 지수를 올려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이 동행하여 마음을 나누는 곳이다.

한편, 에듀힐링센터는 2016년 5월에 개원하여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담, 코칭, 교육 및 연수, 캠프 등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16500여명이 참여해 평균 만족도가 96.4%로 매우 높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여론조사... 찬성 59% · 반대 21.8%

도민 과반수 “행정사무감사 실시해야” · 행감 거부 시-군 명분 약화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가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수 이상의 도민이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준 덕분이다.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과 세종리서치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충남지역 19세 이상 2923명을 대상으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진행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도민은 59%, 1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감사를 반대하는 도민은 21.8%(63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9.2%(561명)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찬성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부여군으로 75.3%였고 반대는 11%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4%가

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49.5%만이 찬성했다.

이번 설문에 따라 시·군 행감이 중복이라고 주장하며 행감을 거부해온 시·군 공무원의 명분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주권자인 220만 도민의 뜻과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12부터 16일까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여군(12일)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 서산시(16일) 등 4개 시군은 서류 미제출과 감사장 진입을 막아서며 감사를 거부했다.

도의회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지난 19일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감사를 재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시군 공무원의 수감 거부는 본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감사 시행을 앞두고 많은 도민께서 시군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제보를 보내왔다”며 “시군은 중복감사라고 반발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체제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반대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60%가량 찬성으로 나온 만큼 시군 공무원들은 도의회 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감사의 순기능을 고려,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1이며 응답률은 2.02%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리서치와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지난 20일부터 2일간 현장방문, 분야별 개선사항 지적 예고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제 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당진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제5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 양기립 의원, 부위원장 서영훈 의원을 선출했다.

양기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이 부여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시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정 추진현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의 시정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무겁고 엄

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현장 방문을 20일부터 21일까지 2일에 걸쳐 실시했다. 20일에는 ▶시장오거리(당진1동) ▶전통시장(당진1동) ▶정미면 하수처리시설(정미면) ▶대호지면 소재지 도로(대호지면) ▶황토권역센터(고대면)를 21일에는 ▶면천읍성(면천면) ▶샘물마을 예술학교(면천면) ▶한양수자인 아파트 부지(신평면) ▶서정리 경로당(송산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국회 방문 현안사업 국비지원 당부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문화상 국회의장과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대전시 지역현안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날 문화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라온바이오 융합 의학연구원 설립 ▲혁신창업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기반시설 조성 ▲유아·청소년 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성 등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회 독도방문단, 여야 국회의원 2차 독도방문

독도시설환경개선사업 완료 따른 시설점검 및 독도경비대 격려

국회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이 오는 26일 독도방문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독도시설환경개선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다. 독도방문단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를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련 경비 시설을 점검한 뒤 독도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총 27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된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경비대 분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신규교체 ▲헬기장 정비·보수 사업 등이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임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부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

한 성일종 의원은 "지난 방문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도수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경비대원들의 노고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비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방문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나경원(단장),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장정숙 의원 등 6명이다. 국회=김성구기자

행복청, 중앙공원2단계 시민대표와 전문가 함께 조성

각 생활권 대표 시민 포함한 민관협의체 구성·첫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 이하 LH)는 중앙공원 2단계 실시설계(안) 마련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1월 20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8월 13일(월) 금개구리 보전지역의 면적을 기존 52만㎡에서 21만㎡으로 조정할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을 발표하고, 세종시에서는 이후 다양한 경로로 시민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숲체원, 반려동물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체육관, 집라인 등 다양한 시설이 제안되었다. '중앙공원 2단계'는 2021년말 준공을 목표로 조만간 환경영향 평가 변경협의를 신청하고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공원1단계는 2019년 말 준공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이명수 의원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월 26일(월)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앞 숲속공터에서 '아산시 우수농특산물 특판 직거래행사'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께서 품을 수확으로 가을의 결실을 내놓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최근 아산시는 밤맛 좋은 벼 품종개발을 비롯해 지역맞춤형 품종개발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내는 등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께서 이러한 성과를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 직거래행사를 "아산시 생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조금이나마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회 판매전을 계기로 아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아산시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모색하여 아산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산시청 및 농업 아산시지부와 단위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아산맑은쌀, 사과, 배, 토마토, 고구마, 버섯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제3차 충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개최

충남도 환경교육활성화 연구모임,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방향 모색



충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기후)은 21일 충남도서관 회의실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3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안'과 '충남도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정환기자

주요내용은 ▲환경교육 시설 등록제도 도입 ▲환경교육 시설 운영 현황 평가 및 평가기준 개발 ▲충남환경교육 기금 조성 ▲환경교육 지도자 교육 지원 ▲충남형 학교 환경교육 도입 등 충남도 환경교육에 대한 각종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지역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등 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각 시·군 환경교육 자원들을 활용한 환경교육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유성구 어은동 주민·소상공인 임대인 상생 프로젝트 협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대전 유성구 어은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어은동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협동조합인 '비파리 청년창업 협동조합(이사장 정다운)'과 도시재생 스타트업 '주원영' 대표 이태호 등 지역의 청년들이 20일 어은동 내 주민협의 공간인 모두의 테이블베리마켓 마트 테라스에서 어은동 내 건물주, 상인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주민·소상공인 임대인 상생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어은동의 주민·소상공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을 자발적으로 마련·실현하자는 취지의 이번 상생프로젝트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력을 증진하고 임대실태 파악 및 임차·임대 관련 문제 해결에 공동대응 및 협력 ▲어은동을 삶의 터전으로서 보호하고, 임차·임대인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다함께 노력 ▲그 밖에 주민·소상공인과 임차·임대인간의 상생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에 협조하고 진행 내용을 상호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향후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프로젝트 협약은 비파리 청년창업 협동조합, 어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스타트업 '주원영', 안병기계 상인협의회, 어은동 건물주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존 관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활동과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다운 비파리 청년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상생프로젝트 협약은 어은동에 오래전부터 뿌리내려 애정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어은동 도시재생사업이 부작용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의회, 시의원·의회사무국 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공직문화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지난 20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국민청원위원회 청렴수련원 임민환 청렴소장강사로 부터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임민환 강사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로 돈을 돌

리고 나라와 공의를 위해 힘쓰려는 마음, 선공후사(사사로운 일이 나 이익보다 공의를 앞세움), 청렴결백(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 정신을 갖추고 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병수 의장은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청렴인식을 제고하고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한편, 직원의 청렴도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합 의 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2.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하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5. 대법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하여 처리한다.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8. 11. 2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 특 정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22일 오후 3시 대구 호텔 인터블고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2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오후 5시 50분 보라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점등식에 참석.

생일 직원 오찬행사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22일 낮 12시 가오동 소재 음식점에서 11월 생일 직원 오찬 행사를 개최. 오후 4시 7층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통 2018년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

보라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장종태 서구청장=22일 오후 5시 30분에 개최되는 2018 보라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석.

11월 이유가 있는 아침식사



정용래 유성구청장=22일 오전 7시 라온 컨벤션에서 열리는 11월 이유가 있는 아침식사에 참석.

제5회 대덕구 공직자 직장교육



박정현 대덕구청장=22일 오후 4시 구청 청렴관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서 제5회 대덕구 공직자 직장교육에 참석.

오늘부터 주2회 골든벨 버스 운영

市, 탑승객 전원에 1만원 권 교통카드 지급 등 시내버스 이용활성화 도모



대전시와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골든벨 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교통카드 사업자 KEB하나은행과 신한카드가 주관으로 대전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주 2회 시내버스 2대를 무작

위로 선정해 승객 전원에게 1만원 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 대상 시내버스 이용 장려와 함께 버스 하차시 교통카드 찍고 내리기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위

해서도 시내버스 같은 공공교통을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시내버스 승객 회복을 위해 버스-타 선정, 투투버스데이, 수요맞춤형 특새노선 개발 및 전기버스 시범도입 등 다양한 승객 창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호 기자

동구 산내동 행복 나눔 우산대여 추진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누구나 대여 가능한 우산 100개 비치



대전 동구 산내동주민센터(동장 현시환)는 지난 19일부터 방문 민원인에게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는 행복 나눔 우산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산내동에 기반을 둔 ㈜제일유업 김갑선 대표의 후원에 힘입은 것으로, 김 대표는 지난 8일 동 주민센터에 장우산

100개를 기부함과 동시에 매년 50개씩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갑선 대표는 현재 산내동 복지만두레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우산 기부와 함께 산내동 나눔냉장고 기증,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현시환 산내동장은 "지역의 대표 기업인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게 큰 행복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구 관저 다목적 체육관 화재 현장 방문

철저한 안전점검 지시... 준공 위해 온 행정력 집중

장종태 서구청장이 21일 관저 다목적 체육관 화재 현장을 방문.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립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국과수 등 5개 기관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화재 현장이 통제됐었으며, 장청장은 최근 작업 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되자 현장을 다시 찾아 곳

곳을 점검했다. 또한, 장 청장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준공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공사는 비계철거 작업과 재설치 작업 등 체육관 건립 정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 부청소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작업을 철저히 한 뒤 조속한 준공에 나설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사 등이 상당 기간 소요될 텐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라며 "시공사 측과 긴밀히 협조해 향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저 다목적체육관은 금년 12월 준공 준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공사 중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이 국과수에서 진행 중이다.

박봉관 기자

유성구 '2018 행복 예산학교' 운영

주민들이 직접 제안·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고도화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고도화를 위해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8 행복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마을활동가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선필 목원대 교수를 초청해 참여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는 참여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사업으로 포함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대표적 민주주의 제도"라며,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이 중심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덕 주부들이여 걱정 말아요"

박정현 구청장, 30~40대 주부와 현장토론회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이 지난 21일 주부와 학부모들의 고민 해결을 위하여 30~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걱정말아요 대덕!'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주민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 21일 송촌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13일 신탄진지역, 12월 18일 오정지역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민선7기 구청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민참여와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주민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민선7기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30~40대 주부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상의 다양한 고민을 중심으로 구청장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화 중간중간 기타 연주와 노래공연도 곁들여져 시종 편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부는 "동네 커피숍에서 구청장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건 첫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대덕구와 구청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소년 100여명과 함께 한 '청소년 타운홀 미팅'에 이어 다음달 4일에는 '청년 100인 초대 타운홀 미팅'이 구청 청렴관에서 열려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보다 따뜻한 세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박정현 구청장은 매달 주민 공감 목요일에 목요일 현장 데이트를 통해 민원인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태선 기자



본사모 '사랑의 책 릴레이' 본죽상품권 기부 본죽을 사랑하는 모임 '본사모'는 지난 20일 소규모 장애인시설인 대전태화장애인보호센터와 대전태화단지보호센터에 방문해 40만원 상당의 본죽 상품권 50매를 기부했다.

중구, 주차난 완화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

선치과병원·태평중앙교회 주차장 70면 주민주차공간으로 개방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21일 청사 부구청장실에서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선치과병원(병원장 선경훈)과 태평중앙교회(담임목사 장경근)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2년간인 2020년 11월까지 선치과병원 주차장 20면과 태평중앙교회 주차장 50면, 총 70면이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개방된다. 선치과병원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일요일/공휴일 제외) 개방되고, 태평중앙교회

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와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 전부가 개방된다. 구는 두 곳의 주차장에 주차를 돕고 CCTV, 주차구획선 설치를 지원했다. 주차장이 개방되면 인근 상가나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75.99%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중구는 올해 석교동과 유류동 등 3개 주민센터 부

설주차장과 3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집중 홍보하며 주차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1개 주차면수를 조성하는데 평균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주차문제를 저비용으로 해결하고, 주차공유 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동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염증성장질환 환우 위한 건강강좌 24일 개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염증성장질환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윤석 교수가 '염증성 장질환이란?' △소화기내과 강상범 교수가 '최근 발전된 약제 및 검사법',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전담간호파트 이은경 간호사가 '내 몸을 위해 평소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원무팀 정낙철 파트장이 '회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 정보' △영양팀 강내영 임상영양사가 '염증성 장질환 환우를 위한 영양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본인 환자, 보호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송병배 기자

서산시 여성취업 지원분야 전국 '최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새일센터 운영평가에서 최고기관 'A등급'

서산시가 여성취업 지원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서산시는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8년 전국 새일센터 사업운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새일센터 사업운영평가는 전국 156개 새일센터의 운영현황과 실적을 매년 A~E등급(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위 10%인 13개 센터에게만 'A'등급이 부여된다. 평가항목은 취·창업성과, 서비스제공, 센터운영, 가점 등 4개 분야이며, 서산새일센터는 모든 평가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A'등급을 받게 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산새일센터는 2012년 개소 이후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취업자 1,000명 이상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 3년(2015~2017)연속 총



청남도로부터 '여성임자리창출 지원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서산새일센터는 '호텔룸메이드', '자

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자동차부품 인 큐베이팅' 양성과정 등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 취업률을 높였으며, 다 문화가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결

혼이민 아시안-북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취약계층의 취업에도 노력했다.

특히 충청남도 내 최초로 장애인여성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ITQ 마스터 양성과정'을 편성해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개의 직업교육훈련생 98명중 97명이 수료하여 99%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서산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취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새일센터는 올해에도 1,340여명의 취업자를 배출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제공과도 힘써 왔으며 취업률도 높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결

서산=김정희기자



순천향대 기업과 성과공유 산학협력포럼 열려

순천향대(총장 서교일)가 충남지역과 경기도 일원에서 강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94개사 우수기업 대표 및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대학과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색 산학협력포럼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아산시에 위치한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SCH 파트너기업 CEO 초청 산학협력 포럼에서는 산학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우수기업 5개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주목을 받았다.

이번 포럼에 대해 이광수 산학협력대학장은 "지난 1년간 기업과 대학간 학생교육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채용으로 연계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선순환 구조에 산학협력의 본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들의 인재채용 모델로 확산될 대표적인 사례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에 지역의 우수기업을 찾아 발굴하고 대학과의 '기업실습-인재채용'의 선순환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의 장기현장실습 등 프로그램에 직접적

으로 참여한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기업 사례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94개사 산학협력 참여기업 CEO 및 임직원과 협약기업, 신규 가족기업의 CEO 및 임직원이 1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측에서는 서교일 총장을 비롯해 이종화 산학협력부총장, 이광수 산학협력대학장, 김동학 산학협력단장과 대학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기업체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서교일 총장은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기업에게는 직·간접 영향을 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과 대학간의 교류와 협력은 상생과 공동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된다"며, "다행히 순천향대학교는 기업인들의 도움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것은 그동안 기업인들의 순천향에 대한 애정의 결과이며, 앞으로 더 기업인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대를 채워나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김영국 회덕농협 조합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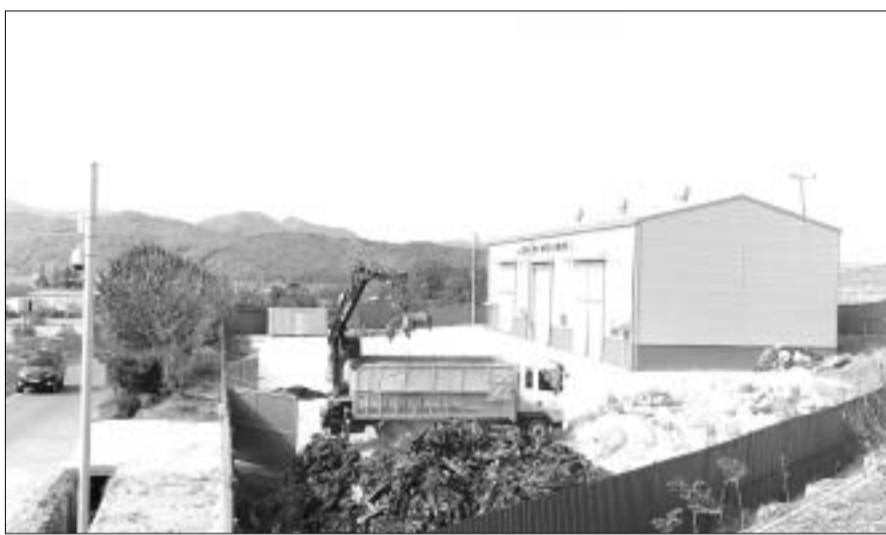
김영국 회덕농협 조합장(사진)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대회의관에서 열린 2018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취임 이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사회복지협의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배려함으로써 대전 지역농협의 나눔 실천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영국 조합장은 "공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작은 나눔의 실천이 모여 큰 운정으로 채워질 때 우리사회는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내달 22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22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10개 읍면 10개읍 60명 영농폐기물 수거전담반을 편성해 수거차량을 투입, 마을 곳곳을 출장해

농작물 경작 후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버려지고 있는 폐비닐, 폐부직포, 폐농약병, 폐차광막, 유효기간이 지난 남은 농약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금지 및 남은 농약병의 처리방법 등

을 안내하고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버려졌던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불법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군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가정이나 영농하우스까지 방문해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할 계획이며, 마을일정에 맞춰 사전에 마을단위 공동집합장에 영농폐기물을 모아두면 방문수거를 할 계획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청양군 폐자원순환센터로 운반 후 적정처리하게 되며 재생원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요인을 차단해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워라벨 무비데이' 열려

천안고용노동부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지난 20일, CGV센터포에서 일·생활 균형 및 노동시간단축 실천기업 인직원·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워라벨·무비데이'를 개최했다.(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로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말)

천안고용노동부지청에서는 참석자의 워라벨을 응원하기 위해 '두근두근 럭키박스를 마련,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생활균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①오래 일하지 않기 ②똑똑하게 일하기 ③제대로 쉬기) 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

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신청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공서에서 제출 후 승인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참여기업이 될 수 있다.

권호안 천안고용노동부지청장은 "우리 지역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적극적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워라벨 무비데이' 열려

워라벨을 응원하기 위해 '두근두근 럭키박스를 마련,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생활균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①오래 일하지 않기 ②똑똑하게 일하기 ③제대로 쉬기) 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

저탄소 소재 활용한 친환경 교량 개발완료

철도공단, 서해선 건설 현장에 국내 최초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국가 R&D과제로 ㈜포스코와 공동참여 중인 '저탄소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20일부터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삼교천교 횡단구간(충남 홍성군 소재)에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삼교천교 횡단구간(50m 교량 8개 시공, 총 400m)에 적용하는 고성능 내후성 강재는 대기에 노출되고 일장기간이 지나도 구조물 안쪽으로는 파고들며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녹이 아닌 구조물을 보호하는 치밀한 녹을 형성해 부식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리를 가진 강철이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강재와 비교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파

괴에 대한 안전성이 최대 2배 향상되고, 강도는 최대 17% 향상됐다.

또한, 기존의 철도교량에 적용하던 강재는 금속표면의 부식을 막기 위해 최초 제작 단계부터 도장(塗裝, 페인트칠)을 해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해야 했으나, 이번에 개발한 강재를 적용하게 되면 도장이 불필요해 생애주기비용을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도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추가적인 도장작업과 녹 점검 등 위험한 유지보수 작업이 최소화되어 작업자와 교량 통과자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양이 게재돼 드디어,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겨울철 재해취약시설 민·관 합동 점검

세종시교육청, 관내 130개 교육시설과 6개 공사현장 전수조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관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겨울철 재해취약시설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 폭설, 한파, 화재 대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교육청, 민간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가 모두 참여하며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겨울철 재해취약시설과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직속기관, 본청 등 130개 기관과 6개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학교시설 전반의 안전사고와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시설 전반을 주요대

상으로 하며, 점검 시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조치 후 조속히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안전점검과 더불어 겨울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화재 및 폭설취약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취약시설로 지정하여 관리책

서산교육지원청, 법문화 체험 실시

서대전형무소·헌법수호의 상징 헌법재판소 견학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은 법사랑 서산지구(회장 유장관)와 21일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법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일제강점기 순국선열들의 이 느껴지는 서대전 형무소 견학하며 애국가를 향

2018 겨울방학 초등학생 영어캠프

아산시, 대학교 초등영어캠프 참여 학생 모집



순천향대학교는 일반학생 8명과 사회적 배려학생 25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3주간 통학형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시에서 일반학생은 30만원을, 사회적 배려학생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원하는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의 2018년 겨울방학 초등학생 영어캠프의 참여학생(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6학년)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선착순 모집한다.

사회적 배려가정 학생은 11월 26일 선착순 모집하며, 시는 올해부터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가정 학생의 모집인원을 기존의 15%에서 25%~50%까지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공주의 역사문화이야기' 특강 호응

공주교육지원청, 공주대 이해준 교수 인문학 특강 실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지난 20일 공주관내 유·초·중·고·특수 학교 및 직속기관 교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인문학 공감 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직장 내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기개발 기회 부여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자율적이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역량 제고 및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이해준 교수를 강사로 '공주의 역사문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특강

선문대학교는 일반학생 40명과 사회적 배려학생 20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 2주간 합숙형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100만원이며 시에서 일반학생은 30만원을, 사회적 배려학생은 87만5천원을 지원한다. 15년간 운영된 영어캠프는 만족도가 90%가 넘는 우수 프로그램으로 매년 온라인 접수가 5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어캠프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 교류처 (<http://sgae.sch.ac.kr/> 530-1383,1398)와 선문대 외국어교육원 (<http://ecamp.sunmoon.ac.kr/> 530-8080)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충남교육연수원, Love Letter 직무연수

수고한 선생님 위한 대기획, 접수 9분 만에 마감

충남교육연수원(원장 유병대)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을 위한 Love Letter 직무연수를 개설했다.

'자연에서 만나는 마음성장', '궁궐이 들려주는 역사이야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체험', '과거에서 배우는 현대의 역사문화체험', '질문이 있는 교실, 거꾸로 교실 캠프' 로 이루어진 1박2일 Love Letter 연수 프로그램에 '과거에서 배우는 현대의 역사문화체험'은 접수 시작 9분 만에 마감되고 궁궐이 들려주는 역사이야기 는 50분 만에 마감

세한대와 당진향교 업무협약 체결

인문학 소양 갖춘 인재 육성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와 당진향교(전교 정덕영)는 지난 20일 10시 30분 당진캠퍼스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세한대 당진캠퍼스 정운식 평생교육원장, 이영환 교양교육개발센터장, 강창구 공자아카데미 원장, 당진향교 정덕영 전교, 이재극 사무국장, 맹영섭 성균관유도회 당진지부 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융·복합적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실사구시 실천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전문인력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내용으로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세한대는 공자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유학을 통해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지역연계 강소대학으로서 국가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협력하게 되어 교육의 발전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향교 교육의 산실인 명륜당을 통해 예절 교육과 각종 문화행사 및 교육 사업을 마련하고, 세한대학교 재학생과 당진 시민들에게 전통에 바탕을 둔 수준 높은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림복지관 '프로그램실 새단장 기념식'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으로 복지관 공간 변화

정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구장환)은 지난 20일 '프로그램실 새단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정종태 서구청장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김판석 사무처장, 복재문화진흥회 최봉하 부회장, (재)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노회유지재단 유지현 이사장, 서구의회 전명자, 조규식 의원, 정림동행정복지센터 이태권 동장을 비롯한 내빈과 복지관 이용자 대표, 주민 등 70여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사업경과 보고와 영상나눔, 현판전

2018 충남 장애학생 진로직업캠프 개최

충남도교육청, 충남 장애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 제공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부터 2일간 서산시민체육관과 베니키아 호텔에서 2018 충남 장애학생 진로직업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개 부스를 운영한다. 도내 학생과 학부모 25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 행사는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



충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제14기 수료식 개최 충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은 지난 20일 충성문화원 공연장에서 2018학년도 수학·과학대상 104시간을 이수한 4학년 78명의 수료생과 학부모, 지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한밭교육박물관, 11월 23일부터 선착순 모집

12월 토요일박물관학교 운영

한밭교육박물관(관장 정규남)은 오는 12월 8일, 12월 22일에 유·초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2월 '토요일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요일박물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박물관의 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토요일박물관학교에서는 유아 및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만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어 보는 <크리스마스 전구 모양 스노우볼 만들기>와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만들기>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초3~6학년 대상으로 한지 공예를 이용한 <조각보 합 만들기>와 스칸디아모스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보고 액자를 만들어보는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모집은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한밭교육박물관 홈페이지(www.hbem.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모집 인원은 유아 20명, 초등학생 120명이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학예연구실(042-670-2214)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밭교육박물관 정규남 관장은 "토요일박물관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동 정 ●●

제27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2일 오후 6시 30분 세종상문서관에서 열리는 '제27회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참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2일 오전 10시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08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5시 인터볼로대구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지방교육재정전력회의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은 22일 오후 1시 대구 인터볼로호텔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전력회의'에 참석.

어로행위 금지 구역 준수 당부

충남도가 해상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령항 등 어로행위 금지 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령항은 국가기반산업인 중부발전 및 보령LNG터미널이 위치해, 석탄운반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박이 입출항하고, 외항선도 올해 3분기까지 161척이 통항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박의 통항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대형선박 통항로와 정박지에 어구를 설치하는 등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는 지난 1일부터 보령항 및 서천군 인근 어선 출항지에 어구설치 금지 등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민들의 불법어구 자진 철거 및 불법어업 금지를 촉구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정박지나 항로 등에서의 조업은 크고 작은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기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어업인들의 참여로 불법 조업 및 어구 설치 금지 구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항만순찰선을 활용한 현장 계도·단속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예산국밥 거리 영업장 내 위생·청결관리 집중지도점검

맛도 위생도 소비자 만족도 높여간다



예산군 삼국축제 이후 예산장터국밥 인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장터국밥 판매 식당에 대한 집중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손님들에게 맛과 서비스 모두 만족감을 주고 있다.

특히 삼국축제를 개최했던 예산장터 주변 백종원 국밥거리의 식당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 축제기간에 쌓였던 좋은 이미지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 위생팀은 11월 한 달간 국밥집 종업원 위생모 착용과 더불어 업소 내 주방 청결관리상태 등 전체적인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뿐 아니라

업소별 국밥의 맛과 위생 서비스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위생관리를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밥거리 모든 업소에 손 소독제와 살충제 등을 지급해 살균, 살충 및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국밥 거리를 찾은 손님들에게 맛과 위생, 서비스까지 모두 인정 받는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삼국축제 이후 백종원 국밥거리에 다시 찾은 정 모씨는 "예산 5일장이면 항상 백종원 국밥거리를 찾아 국밥을 먹고 간다"며 "최근 이곳 국밥거리 식당들이 청결상태는 물론 전체적인 위생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만족했다"

고 말했다.

최근 국밥집을 찾은 최 모 손님도 "국밥집이 대부분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곳 백종원국밥거리 국밥집들은 위생과 청결에 있어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낀다"며 "청결한 곳에서 먹는 국밥이 더욱더 맛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택 위생팀장은 "예산군 8미 음식 중 하나인 예산장터국밥이 맛은 물론 위생과 청결 부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누구나 예산장터국밥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연수생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현장방문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제11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24명이 지난 20~21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연구를 위해 예산군을 방문했다.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백종원 국밥거리를 조성해 개최한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10만 5천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전통시장과 축제를 연계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예산작은영화관이 개관 1년 만에 관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0월 말 누적 관객 수 1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에 활력이 일고 있으며, 올해 공모에 선정된 구보건설소 활용 신활력 창조소 조성사업은 앞으로 평생학습 공간 마련과 시장 상인회, 기업과 지역학회가 함께 협업체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방문한 연수생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군청 중회의실에서 백종원 국밥거리, 예산작은영화관, 예산장터 삼국축제 현황과 신활력 창조소 조성사업 등 예산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현장을 방문했으며, 예당호 출렁다리, 내포보부상조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예산황새공원과 수덕사 등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천백 년의 역사와 문화의 고장 우리 예산군을 방문해주신 연수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군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김태선 기자

“상생협력 모색방안 찾는 계기”

제3회 공공갈등 인식 개선 문화행사 23일 개최



토론회는 방승인 김미화 씨가 '갈등 속에 사람이 있다'라는 주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모색 방법 등을 제시한다.

정책토론회는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장창석 전연연구원이 '가족사육 제한 인적 시·군 간 조정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갖는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이영우 도의회 의원, 충남연구원 강마하 연구위원, 예산환경운동연합 김영우 의장,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최선경 부위원장, 예산군 조성수 환경지도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충남도는 오는 23일 오후 1시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제3회 공공갈등 인식 개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호대립의 갈등을 넘어서면 상생협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도민 화합과 민관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토론회와 정책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성구 기자



“크리스마스 썸 구입” 결핵퇴치 운동 동참

이춘희 시장, 대한결핵협회 충남세종대전지부 성금 전달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시청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남상현 충남세종대전지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썸을 전달 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결핵퇴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크리스마스 썸' 판매 모금 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올해 크리스마스 썸은 '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야기'를 주제로 DMZ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보

호를 유도하고, 이들과 공존하려는 내용을 담아 우표와 금속책갈피 형태로 제작됐다.

크리스마스 썸 구입으로 마련된 성금은 학생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원치 독려금을 지원 하는 결핵치료학생 행복나눔 지원 사업과 이동엑션 검진 및 결핵균 검사 등에 활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결핵퇴치 재원 마련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많은 시민들과 세종시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투데이 www.daejeontoday.com

Advertisement for Enfren tires,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car on a road and a smaller image of a tire. Text includes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and '엔프렌 효과관?'. The logo 'enfren' and 'HANKOOK' are visible.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도 엄마야(SBS 오전 8시30분)



드디어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경신(우희진)과 태웅(김민준)은 그어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기다리던 경신을 만나러 가는 날이 오자 김민준(신태웅)은 행복하게 준비한 후 집을 나서고, 애타게 김민준을 기다리던 우희진은 보자마자 끌어안는다. 한편 진국(지창은)은 몸매 이상을 느끼고, 진찰을 하던 해림(문보영)이 뱀가래를 감지하는데...

▲차달래부인의 사랑(KBS2 오전 9시00분)

말짱해 보이는 복남의 모습에 소영은 안심하고 복남은 허세와 함께 준호집에 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준호가 똑같은 스킵프를 자신과 미래에게 동시에 선물했다고 오해한 송주는 미래의 뮤지컬 극장에서 큰 소동을 벌인다.

▲비켜라 운명아(KBS1 오후 8시25분)



수회는 안희정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다 노여움만 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남진은 난처해진다. 시우는 승주를 데리고 어느 호텔로 향하는데...

케이블 영화

▲택시운전사(OCN 오후 4시10분)

광주를 취재한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그를 태운 택시운전사 기사복 살촌 인물을 모티브로, 1980년 5월 광주를 스크린에 불러내다

1980년 5월, 서울 택시운전사. "광주? 돈 워리, 돈 워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택시운전사 만실(송강호)은 외국순남을 태우고 광주에 갔다 톱금 전에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금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영문도 모른 채 길을 나선다.

광주 그리고 사람들. "모르겠어라, 우덜도 우덜한 데 와 그리는지..."

어떻게든 택시비를 받아야 하는 만실의 기지로 검문을 뚫고 겨우 들어선 광주. 위험하니 서울로 돌아가지는 만실의 만류에도

피터는 대학생 재식(류준열)과 황기사(유혜진)의 도움 속에 촬영을 시작한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만실은 집에 혼자 있을 딸 걱정에서 점점 초조해지는데...



▲도둑들(채널CGV 오후 10시30분)

10인의 도둑, 1개의 다이아몬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팀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도둑 뽀빠이와 예니콜, 씬턴검, 잠파노. 미술관을 터는데 멋지게 상공한 이들은 뽀빠이의 과거 파트너였던 마카오박이 제안한 홍콩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듣게 된다. 여기에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고발이 뽀빠이가 합류하고 5명은 각자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홍콩으로 향한다.

홍콩에서 한국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는 4인조 중국도둑첸, 앤드류, 줄리, 조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팅된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도둑들. 팽팽히 흐르는 긴장감 속에 나타난 마카오박은 자신이 계획한 목표물을 밝힌다. 그것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최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지만 2명만 달려의 탈출한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은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그러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런 마카오박과 그런 마카오박의 뒤를쫓을 노리는 뽀빠이.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신성대 레저스포츠과, 제2회 졸업 실기작품 발표회 개최

전국대회 연속 입상 통해 생활스포츠 유망학과로 각광



신성대학교총장 김병욱) 레저스포츠과(학과장 안주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교내 태권 아카데미 중 경기장에서 '제2회 레저스포츠과 졸업 실기작품 발표회'를 개최

청양군 수영종목 '새로운 희망을 쓰다'

학부모, 학과 선후배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Group-Exercise(그룹운동), 요가, 힙합댄스, 크로스핏, 에어로빅 시키트, 스윙 임팩트, 댄스스포츠, 재즈 댄스, 시니어 운동, 유아체육, 줌바 라인, 폐회식 순으로 장장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레저스포츠과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각종 대회 및 시범 공연 참가 등의 활동을 통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실기 능력을 살린 다양한 생활스포츠 관련 창작무대를 선보여 행사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당선=최근수기자



청양군 수영 꿈나무가 제2회 충청남도학생체육대회 수영종목에 출전, 메달을 획득하면서 지역의 수영 인재 양성에 발판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당진 문화교육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남학생체육대회 중등부 자유형 50m 경기에서 군 대표로 출전한 이다솔(여, 가남초6) 선수가 32초51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청양군 학생부 수영역사상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 쾌거를 이뤘다.

청양군 학생부 18명의 선수는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양군국민체육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한 결과 6명의 학생이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다솔 학생은 평소 뛰어난 집중력으로 기록단축에 힘썼고, 그 노력의 결과가 이번 대회에서 실력으로 빛을 발했다"며, "앞으로 청양군 수영부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운동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홍성 내포초 학교스포츠클럽 넷볼 그랜드슬램 달성

첫 도전에 전승으로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쾌거 이뤄



홍성 내포초등학교교장 한만희) 넷볼팀이 올해 3개 대회(충남도교육감기 넷볼대회, 전국넷볼협회장기대회, 제11회 전국학생스포츠클럽 넷볼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하면서 2018년 대한민국 초등학교 넷볼 주요 대회를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전국최강임을 입증했다.

넷볼은 농구와 비슷한 경기로 7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드리블 없이 주고받는 패스만으로 공을

아산시농기계보관창고, 2018 신진건축사 대상 '우수상'

성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신진건축사대상에서 작년에 증축한 농기계보관창고가 2018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달리에 마무리건축사사무소의 구국현 건축사가 설계해 '건축, PVC를 일대다리는 작품명'으로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센터 관계자는 "대여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으로 내구연한 증대 및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어려운 농촌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의 농기계보관창고가 유해배기가스 없는 건축물로 인정받으며 2018 신진건축사 대상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미래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인재를 발굴하고 육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타교단 음악적 재능도 경험도 없지않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50여명의 청소년들이 그간의 갈고 닦은 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시간.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0일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Table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like OCN, MBC, SBS, YTN, etc.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뉴스

후 원 | 한국장재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LOTTE CHEMICAL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Hanuhwa TOTAL 한화토탈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한밭대학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